

기억을 위한 아키비스트*

- 기록과 기억의 이론적 고찰 -

Archivists for Memory: A Theoretical Study on Archives and Memory

신 동 희 (Donghee Sinn)**

김 유 승 (You-seung Kim)***

목 차

- | | |
|----------------|-------------------------------|
| 1. 시작하는 글 | 5. 기억과 집단의 정체성 |
| 2. 기억의 사회적 맥락 | 6. 기억과 아카이브 |
| 3. 기억과 역사 | 7. 기억을 위한 아키비스트 |
| 4. 기억과 망각의 정치성 | 8. 맺는 글: 노근리 기록과 기억 연구에 대한 함의 |

<초 록>

기록학에서 집단 기억, 사회적 기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그 이론적 배경을 고찰한 연구는 많지 않다. 기억이 가지는 포괄성이 기록이 가지는 제한된 역사기술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구의 많은 학자들은 아키비스트가 문자화된 기록뿐만 아니라 도처에 만연해 있는 기억을 수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역할에는 공유되고 전승되는 기억을 통해 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재구성해야 함이 포함된다. 기억이 가지는 사회적 특성은 주류문화 위주 기록문화의 한계성에 도전하고, 비주류문화, 비기록문화의 역사를 포함하고 전승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억의 담론에서 아키비스트는 기록관에 수집하고 보존할 역사의 내용이 문자화된 지배집단의 기록에만 한정할지, 소외받고 배제되는 사회집단을 포함할 것인지 결정하는 역사의 중요한 권력자다. 본 연구에서는 기억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역사와 기록이 기억의 담론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설명되는지 살펴본다. 결론에 갈음하여, 기억의 담론에서 기록관과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논의한다.

주제어: 기억, 사회적 기억, 집단 기억, 기록, 아카이브, 아키비스트

<ABSTRACT>

In archival discourse, social memory has been discussed for some time. Despite this, however, theoretical studies have not been prolific at all in the Korean archival community. Many Western scholars have argued that archivists should consider memory rather than records for archival preservation because the inclusiveness of the former will fill the gaps in the latter. Social memory that is shared and transmitted across generations in society would include the stories of marginalized groups of people who are often neglected in official documents. Archivists can reconstruct the diverse narratives of a variety of social groups based on social memory, and this would be their social responsibility. In this sense, it is archivists who exercise power regarding how history will be written in the future because they determine what would be preserved in archives: mainstream culture with official records or a broader spectrum of diverse stories of people in society.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intends to understand how memory is discussed in archival discourse and to review how archives and history are associated with memory in theories and practices.

Keywords: Memory, Social Memory, Collective Memory, Records, Archives, Archivists for Memory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3066027).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노근리 디지털아카이브 프로젝트>에는 김수진(중앙대학교 박사과정), 김유승(중앙대학교 부교수), 류반디(중앙대학교 박사과정), 박태연(중앙대학교 강사), 신동희(University at Albany 부교수), 윤은하(전북대학교 조교수) (가나다 순)가 참여하고 있음.

** University a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부교수(dsinn@albany.edu) (제1저자)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kimyus@cau.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6년 1월 22일 ■ 초심사일: 2016년 1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6년 2월 23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1), 41-59, 2016. <<http://dx.doi.org/10.14404/JKSARM.2016.16.1.041>>

1. 시작하는 글

개인의 영역으로만 인식되었던 기억이 사회적 맥락에 기반을 둔 집단의 산물로 인식되면서 기억에 대한 학술 연구는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의 영역을 넘어서 역사학, 문화연구 등 다수의 연구 분야로 확장되어 왔다. 기억이 필연적으로 ‘사회적 맥락’ 속에 존재한다는 주장은 프랑스 사회학자 Halbwachs(1992)에 의해 최초로 제기된 이후, ‘개인적 기억’, ‘개별적 기억’, ‘사적 기억’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회적 기억’, ‘집단적 기억’, ‘공적 기억’이라는 개념이 논의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기억 연구(memory studies)가 이루어졌고,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기억산업(memory industry)이라 일컫기도 하였다(Klein, 2000).

기억의 실질적 소유 주체는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기억은 특정한 사회, 문화, 정치적 맥락에서 ‘공유’되면서 집단의 기억을 형성한다. 여기서 ‘공유’되는 정서와 기억은 다시금 집단의 정체성과 문화를 대변하게 된다. 특히, 기억연구가 하나의 중요한 학문적 영역을 차지하게 된 것은 기억이라는 형태 정보가 지니는 포괄성으로 인해 문화적, 사회적 단면을 어떠한 매개체보다 더 광범위하게 묘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역사학, 문학, 사회학, 인류학 등에서 기억은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되었다.

이는 기록학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문자화된 기록이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대와 사회가 품고 있는 다면적 심연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주류의 정보로 과점되는 기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또한 공유되고 전승되는 기억을 통해 한 시대

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기억은 기록학이 간과할 수 없는 주요한 연구 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록학 영역에서 기억에 대한 담론은 소수 연구자들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을 뿐, 기록학의 주된 연구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 기록학 영역에서 기록의 담론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성과는 구술기록을 사회적 기억의 기록화 관점에서 다룬 최정은(2011)의 “사회적 기억과 구술 기록화 그리고 아키비스트”와 사회적 기억 구축을 위한 기록관리의 역할 및 방향성을 모색한 김명훈(2014)의 “기억과 기록: 사회적 기억 구축을 위한 기록학의 역할” 등이다. 그 외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학문적 논의 및 성립 배경과 그 사회적 함의에 대한 논의 속에서 사회적 기억을 다룬 윤은하의 연구(2012)가 있다. 이는 기록학의 타 세부 영역의 연구성과와 비교뿐만 아니라, 사회학, 역사학, 문화연구 등 타 학문에서 다루고 있는 기억에 대한 연구성과와 비교했을 때, 매우 소략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본 연구는 ‘노근리 디지털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하고 저장해야 하는 기록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미군 문서와 한미 양국 정부보고서 위주의 공식 문서가 표현하는 노근리 사건은 매우 제한적인 일방의 관점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프로젝트팀은 노근리 사건을 기록이 아닌 기억을 매개로 보존하고자 하며, 그 기초단계로 기억의 이론적 배경을 살피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록학 담론의 관점에서 사회적 기억에 대한 논의를 살피고 오늘날 우리 기록학 공동체에 가지는 함의를 논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이론적 연구가 노근리 기억과 공유되는 연계성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2. 기억의 사회적 맥락

사회적 맥락에서 기억을 연구한 다수의 학자들은 개인의 기억이 사회적 환경이나 공동체 내부 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즉, 기억은 단순히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의 관계, 정치 체계, 사회적 권력관계 내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담론, 이슈, 기대 등은 개인이 한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의 기억은 매우 유연하여, 상황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심리학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Loftus & Palmer, 1974).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 문화, 정치적 환경 요인은 개인의 기억뿐 아니라, 공동체의 기억에 작용하게 되며, 이와 같은 공동체에 대한 작용은 기억의 사회화와 공적 영역화를 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공적 기억 또는 집단 기억이라 불리는 사회적 기억은 정치,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시대적 규범과 체제와의 상호작용과 반작용을 통해 규정되고 생성되는 기억을 의미한다. Halbwachs(1992, p. 22)는 기억이 사회적으로 집단의 사람들에 의해 구성되고, 사회적인 집단이 어떤 사건을 기억할지, 어떻게 기억할지를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집단의 기억 활동에 있어 특정한 시간과 공간의 틀은 필수 요건이다. 기억을 행하는 주체는 개개인이지만, 그 기억을 강하게 이끌어내고 존속시키는 것은 사회적 집단이

기 때문이다.

Thelen(1989, p. 1119)은 기억의 사회성에 주목하며, 개인과 집단의 구분 없이 기억은 단순히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한다. 그는 개인의 기억이건, 집단의 기억이건, 기억이란 사회적인 환경, 공동체적 맥락, 정치역학 등과의 조응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다시 말해, 개인을 둘러싸고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역학관계가 기억이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과정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Halbwachs와 Thelen은 개인의 기억이 필연적으로 개인 영역 이상의 공적 영역과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논하였다. 반면, Connerton(1989)은 기억이 오로지 심리적 작용일 뿐이거나 혹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작용만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정되고 반복되는 행위에 의해 구체화되고 전승되는 결과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habit memory”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신체 표현, 물리적 움직임 등 반복되는 행위(ritual performance) 등에 의해 기억이 표현되고 전승된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반복되는 전례 등의 행위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연속성을 의미하는데, 각종 기념식, 의식과 제례, 종교 전례, 근대에 나타난 다양한 전통 등을 기억을 위한 표현의 예시로 제시하였다. 이런 사회적인 의식들은 일정한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은 구두로, 몸짓으로, 신체적인 관습으로 행해지면서 기억이 전승된다.

기록학 연구자들도 사회적 기억을 다양하게 정의해 왔다. Millar(2010)는 사회적 기억을 명확히 구분 가능한 개념으로 보고, 이를 공동체에 의해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생성되

고, 구성되고, 조직되고, 사용되는 기억으로 정의하였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Foote(1990)는 사회적 기억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첫째는 '사회적으로 결속되어 있거나 공동체 의식을 지닌 복수의 개인들이 나누는 공통된 신념과 생각'이 사회적 기억이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앞서 기술하였듯이 사회학, 심리학 영역 등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둘째는 다수의 개인 또는 기관들이 과거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수행하는 활동들, 즉 구체적 기록 관련 활동들을 사회적 기억 활동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관점이다. Foote(1990, p. 380)의 관점에서 보면, 아카이브와 박물관 등을 포함하는 사회의 많은 기관들이 사회적 기억이라는 공통 영역을 서로 분담하기 위해 밀접한 연관성을 맺으며 활동한다. 개별 기관들이 자신의 특정 과거만을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기관의 기록들은 전체적 견지에서 서로 낱줄과 씨줄로 엮여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개별 기관이 독립적으로 사회적 기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거부한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 사회의 여러 가지 전통을 배제한다면, 아카이브의 사회적 역할 수행은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았다.

3. 기억과 역사

한 사회의 과거를 다원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게 하는 사회적 기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록과 아카이브의 궁극적인 목적인 역사와 관련하여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억과 역사는 상호 배타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반드시 상보

적이거나 유사한 개념도 아니다. 앞서 논한 사회적 맥락과 사회 내 다양한 관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기억이 생산된다면, 과거에 대한 기억은 현재의 관심사에 의해서 재생산되고 재구성되는 사회적인 활동이다. 사회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기억하며, 어떤 사회적, 정치적 전통과 조건이 사회적 기억을 중요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사회적 기억이라는 담론의 기초를 이룬다. 현재의 문제나 이슈들이 보통은 과거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으로 작용하고, Connerton(1989, p. 3)은 이를 "현재의 경험은 과거에 대한 지식에 달려 있으며, 과거에 대한 이미지들이 현재의 사회적 질서를 정당하게 만드는 데 일조한다"고 묘사한다.

Greary(1994)는 저서 '기억의 유령들(*Phantoms of Remembrance: Memory and Oblivion at the End of the First Millennium*)'에서 11세기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과거를 보존하는 방법을 폭넓게 다루었다. '여성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행위', '수도승들이 자신의 기록관을 만드는 과정', '필사가들이 기억되어야 할 또는 잊혀야 할 왕족을 결정하는 일' 등 중세시대의 활동들 중 기억을 위한 활동들을 분석하면서, 과거의 기억을 보존하는 활동들이 당시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즉, "개인들이나 공동체들이 기록물, 기독교 전례서, 문학서 등을 복사하고 요약하고 수정하는 행위는, 선대의 역사와 구두 전통을 통해 과거의 모습을 밝히고, 이를 통해 현재의 모습을 물리적으로 환기시키기는 것과 관련하여 수행된다"는 것이다(Greary, 1994, p. 8).

하지만, 과거와 현재의 단순한 연결이 바로

역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기억은 역사의 기초가 되지만, 그것이 그대로 역사가 되지는 못한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기억이 인식되고, 축적되고, 탐구되고, 사용되어 왔는지를 연구하면서, Hutton(1993)은 역사와 기억을 분명하게 구분하였다. 그는 “기억은 과거와 현재의 유사점을 확인하고, 기억을 통해 과거가 다시 한 번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한다. 기억은 우리의 감정에 호소한다. 반면, 역사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하고, 과거를 입계거리에 두고 재구성한다. 역사는 현재와의 연계성을 설명할 때 감정의 개입을 피한다. 기억에 의해 재생되는 이미지는 끊임없이 변하고 쉽게 파악하기 어려우며, 역사의 데이터는 지속적이고 입증 가능하다”고 설명한다(Hutton, 1993, p. 76). 역사가 과학적 방법론과 분명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반면, 기억은 개인의 감정과 정서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기억은 주관적이고 유동적이며 조작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 존재하며, 기억을 남기고 재생하기 위해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은 필요치 않다.

그 출발점부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라는 관점에서, 과거를 조명하는 역사는 기억과 동떨어질 수 없다. Le Goff(1992)는 고대부터 근대까지 역사편찬의 연속성을 과거와 현재, 고대와 근대, 기억과 역사라는 관점을 통해 발견하게 한다. 역사는 과거를 재조합하는 과정을 수반하나 이는 역사가가 살고 일하는 현재의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구조에 종속된다. 기억은 역사의 원재료다. 기억은 구두이건 문자이건 단지 마음속에 머물러 있건, 우리의 일상적 삶과 사

회적, 정치적 구조 속에서 스며들어 있기에, 역사를 쓰기 위해 필요한 살아있는 재료가 된다. Le Goff(1992, p. xi)는 기억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 무의식중에 이루어지고 역사라는 학문 자체보다 역사가가 살아가는 사회나 시대의 작용에 더 종속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기억의 영향을 받은 역사는 오히려 기억을 비옥하게 하는 양분이 되고, 더 나아가 역사는 사람들의 기억과 망각의 변증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같은 맥락으로 Lowenthal(1985, p. 211)은 “역사적인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역사책보다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보고 겪은 일상의 것들로부터 온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기억은 포괄적이고 배제하지 않는다. 역사연구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집단 기억은 지속적으로 생성된다. 일반 사람들의 풍습이나 관례는 공식 역사편찬에는 자주 생략되지만, 구두 전통에는 여전히 살아 있고, 후에 역사가들의 관심을 받아 역사연구에 선택되기도 한다(Hutton, 1993, p. 2). 기억이 포괄적이라는 점은 형태면에도 해당된다. 사회적 기억을 전승하는 데 있어, 문자, 쓰기, 그림 등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기록’은 필수 조건이 아니다.

역사는 구체적인 활동이다. 기억은 개념적으로 역사와 그 출발부터가 다르다. 역사의 재구성은 문자화된 기록으로 전승된 기억이 어떻게 기재되는지에 중점을 둔다. 하지만, Connerton(1993)이 다수의 예시로 설명했듯이, 기록되지 않는 많은 사건과 풍습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과거에 대한 지식이나 이미지는 반복되는 의식, 제례 등에 남아 지속되고 전승된다. 일상을 구성하는 수많은 행위와 사

건들 모두가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 중 매우 적은 부분만이 매우 적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될 뿐이다. 기억과 쓰기 또는 기억과 읽기 간의 관계는 필요충분조건이 아닐뿐더러, 사회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하기 십상이다. 기억과 기록은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 서로의 연장선상에 존재한다.

Woolfe(1991, p. 291)는 16-17세기 영국의 역사에서 기억과 기록의 관계를 주종관계로 보았다. 기억이 주, 기록이 종의 입장이다. 그는 17세기 영국인 속기사였던 John Willis가 필기 업무를 가르치는 일 이외에도 기억력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예시를 들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읽고 쓰는 능력이 증진되고 인쇄 기록물이 크게 증가하면서, 기억과 기록의 주종 관계는 전도된다. 특히, 사회적 기억의 전개와 확장은 이를 가속화시켰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에서 가지는 기록의 무게는 16-17세기 영국의 사회와 사뭇 다르다. 기록은 기억 활동의 중요한 방법을 차지한다. 하지만, 전 인류 역사 중 인류가 읽고 쓰게 된 역사를 생각해 보면, 기록이 대표하는 역사의 양을 짐작할 수 있다.

기억과 기록의 관계는 기록이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기록이 기억을 전승하는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남아 있는 기록을 통해 기억이 재생되기도 한다. 즉, 기억은 기록이 제공하는 하나의 속성이다(Yeo, 2007). 기록 그 자체가 바로 기억이 되지 못하지만, 기억을 제공하는 유인 장치가 된다. 기록과 과거사건 간의 관계를 생각해볼 때, 기록을 생산하는 활동은 사건의 일부이지, 기록이 사건 전체를 투영해 보여주는 영사기는 아니다. 이 관점에서 Yeo는 과거 사

건의 일부(기록)를 보면서 우리는 과거 사건의 나머지 부분은 상상하고 이해할 뿐이라고 한다. 기록이 과거 사건을 객관적으로 그대로 증명해 줄 수 없으며, 오히려 과거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기록을 해석하는 것은 기록을 보는 사람들의 몫이다(Meehan, 2009). 이런 관점에서 과거를 상상하게 해주는 '기록'이 반드시 문자화된 기록일 필요는 없다.

선택적으로 남겨진 기록이 대표하는 내용은 결국 기록의 주체였던 사람들의 역사에서 출발하게 한다(Sinn, 2010). 즉, 역사적으로 읽고 쓸 수 있었던 사람들, 충분히 글자와 문장을 남기고 후대에 물려줄 수 있었던 특권 계층의 공식기록만이 선택적으로 남겨진다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기록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자신의 역사를 남길 기회를 갖지 못한다. 역사를 상상하고 이해해 볼 근거가 되는 기록 자체가 없으므로, 결국 그들의 역사는 역사편찬에서 소외될 것이다. 또한 구두 전통 등 비기록 방식의(non-recorded culture) 전승문화를 가진 문화권의 역사 역시 역사학의 주류 담론에서 비껴갈 수밖에 없다(Wareham, 2002).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기억이 역사의 담론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억이 내포하는 포괄적인 역사전승을 고려한다면, 기록의 의미도 문자화된 기록뿐만 아니라, 기억을 경험하게 하는 모든 유물을 포함한 과거를 전승하는 다양한 활동 역시 광의의 '기록' 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Brothman, 2001).

4. 기억과 망각의 정치성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전승되도록 선택된 기

역과 그렇지 못한 과거의 사진들은 현재의 정치사회적 쟁점과 관련하여 결정된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로서 역사와 조응하는 기억과 기억을 보존하려는 사회적인 노력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속성을 지닌다. Le Goff(1992, p. 98)는 정치성을 기억과 집단 기억의 본질적 특성 중 하나로 인식한다. 집단적으로 선택되어 기억되는 내용은 종종 변형 또는 조작의 대상이 된다. 결국 집단 기억은 기억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결과이며, 이를 가장 잘 이해하는 권력의 목적이나 도구가 된다.

역사와 기억의 단순한 이분법 구조는 집단 기억과 역사의 정치적인 단면을 간과한다. 역사가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역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 역사적 기억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집단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맥락에서 Geary(1994, p. 12)는 “만일 현재 역사가들의 역사서들이 분석적이고, 비평적이고, 합리적이라면,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의 집단 기억에 최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적 기억이 정치적이거나, 사회의 집단기억도 정치적이다”고 단언하였다.

기억이라는 행위가 정치적이거나, 망각 역시 정치적인 것인가? 망각은 사회적 기억을 형성하는 또 다른 행위다. 자랑스러운 기억은 퇴색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경향이 있고, 수치스러운 기억은 무시하거나 일부러 과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문화적 편견의 작용이고, 그 시대가 받아들이는 자랑스러움과 수치스러움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전쟁의 역사에서

승전국에서 기억하는 전쟁과 패전국에서 기억하는 전쟁이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해 보라. 또한 어느 시점부터의 역사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역사인지는 시간의 근접성에 대한 시대적 인식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아버지의 과거보다 할아버지의 과거를 더 선망하는 경우의 예를 들어보자. 대개의 경우, 너무 잘 알아서 고통스럽거나 해석의 여지가 적은 과거보다 시간적으로 더 멀어서 내용의 유연성이 있는 과거를 더 보존하고자 한다(Lowenthal, 1975).

기억과 망각은 자연경관이나 역사적인 사건 현장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폭력적이거나 비극적인 사건은 사회가 잊고 싶어 하는데, 그 폭력적인 사건이 일말의 교훈이 되는 본보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건에 관한 기록, 유물, 현장은 쉽게 지워지고 잊히게 된다. 대량학살이 대표적인 경우다. 불법적이거나 부끄러운 사건들은 기록으로 증거를 남기려는 노력에 태만하다. Foote(1997)와 Burke(1989)는 이러한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기억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회적 망각(social amnesia)’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망각은 누가 역사를 보존하는지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 기억과 망각의 대립은 부정적 과거에 대한 권력층의 검열과 삭제, 그리고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기억의 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Foote(1997, p. 33)는 사회적 기억이나 망각은 문자화된 기록의 물결에도 멈춰지지 않았기에, 역사가들이 한때 사람들이 잊고 싶어 하는 사건을 일깨워주는 기억의 환기자로서 역할 했듯이 다시 한 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다른 형태의 망각은 대표사건만을 기억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고통스러운 수많은 사건을 기억하기보다는 하나의 대표 사건만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기억의 책임을 다한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억은 일일이 기억하기에 고통스러운 다른 비슷한 사건들을 망각하기 위한 의식의 표현이다. 베트남 전쟁의 많은 학살 중 MyLai를 대표적으로 기억한다든가, 마찬가지로 한국전쟁에서 수많은 양민학살 사건 중 노근리 학살만이 대표적으로 기억되어 다른 사건들을 대신한다든가 하는 예시에서 이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Young, 2002).

망각은, 개개인의 기억을 위입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 사건에 대한 집단적 기념 활동은 개개인의 기억 활동을 대신한다. 사회는 기념관, 기념비, 심지어는 기록관의 설립으로 기억하길 원하지 않는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책임을 위입한다. 기념비는 그 자체로는 단순한 돌덩이일 뿐이지만, 한 사회에서 기념을 위한 의식의 일부로써 또한 국민들의 순례 대상으로써 활동되는 기념비에는 사회의 정신과 기억이 투입된다. 따라서 기념비의 형식이나 관련된 의식의 내용은 각 사회의 특성, 정치역학 등에 의해 결정된다(Young, 1993). 때론, 거시적 관점에서, 기념비는 사회의 기억으로 개인의 망각을 대신하고자 하는 방법일 수 있다.

5. 기억과 집단의 정체성

이상에 논한 기억 연구, 특히 집단 기억에 관한 연구 중 상당수는 집단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Halbwachs(1992)는 집단

기억을 집단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하지만 집단 내에서 공유되는 모든 기억이 집단 기억이 되는 것은 아니다. Assmann(1995)은 집단의 개개인들에게 널리 공유되며 개개인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집단을 규정하는데 도움을 줄 때만 비로소 집단 기억이라 칭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쟁에서 맞붙은 국가들, 심지어는 동맹으로 참전한 국가들조차도 서로 다르게 전쟁을 기억하고, 그 기억에 따라 각 나라의 정체성을 세운다. 예를 들면, 미국과 러시아는 각자의 시각에 따라 2차 세계대전을 바라보게 되고, 각각의 전쟁 기억에 따라 국가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세계에서 자국의 위상을 자리매김한다. 또한 각자의 국민이 생각하는 전쟁의 기억은 발생, 확산, 공유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인 요인으로 왜곡되고, 이로 인해 각 사회의 맥락에서 집단 기억은 왜곡된 채로 남기도 한다(Brown, Kouri, & Hirst, 2012).

전쟁과 마찬가지로 대량학살사건과 같은 대참사는 국가의 정체성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참사를 겪은 생존자들의 1차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전승되어 간접적으로 이어지는 2차적 기억, 기념식, 기념관, 기념비, 국경일 등 기념 활동도 정체성 형성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참사를 인정하고 비극의 주인공들의 아픔을 공유하는 의미를 가지는 기념관의 설립 자체가 정체성에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기념관이 역사해석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민족이나 집단의 정체성 형성과 연관될 수도 있다.

Bartlett(1932)는 사회 구성원들의 공유 기억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체제는 스키마, 정보의 범주 체계라고도 불리는 사회의 관념체계라고 논하였다. 스키마는 과거 경험의 적극적인

조직화이자, 인간의 지식 및 관념의 반응체계다. 개인이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개인은 자신의 스키마에 새 정보를 대응해서 개념을 형성한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함께 자라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책을 읽고, 수많은 동일 사건을 경험하면서, 기억을 공유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유사한 스키마, 즉 관념체계를 갖게 된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관념체계는 과거를 기억하는 방법과 관점을 형성한다. 사회적 관념체계는 사회적 기억을 결정하고, 사회적 기억에 따라 스스로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논리다.

6. 기억과 아카이브

본 장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체계로서의 기억과 아카이브, 그리고 그 둘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또 하나의 방식은 사회적 기억의 일부로써 정보와 기록을 기관화하거나 구조화하여 전승하는 것이다. 즉, 기록관, 박물관, 도서관 등 사회적으로 정보와 기록을 책임지도록 임무 지워진 기관들을 통하는 것이다. 기록관과 사회적 기억을 연결하려는 노력은 주로 기록관의 문화적 기능에 강조점을 두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Foote(1997)는 기록관과 사회적 기억을 커뮤니케이션과 문화라는 넓은 관점에서 연결시켰다. 그는 기록관을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시공간적 범위를 연장해주는 중요한 도구로서 보았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기록물을 생산, 수집, 형성하게 하고, 또한 사회 구성원에게 기록관의 사회적 역할을 설명해준다. 프랑스 사회학

자 Pierre Nora는 기록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현대의 기억은 결국은 기록이다. 기억은 전적으로 우리 발자취의 물질성에, 기록의 즉각성에, 이미지의 가시성에 의존한다. 쓰여지기 시작한 것들은 충실함과 정확함으로 끝을 맺는다. 우리 내부에서 기억이 많이 경험되지 않을수록, 더 많은 기억이 외부의 무대, 표면상의 기호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즉, 한때 과거와 현재의 완벽한 보존을 시도했던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기록관에 집착하는 것이다. 기록관이 빠르게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현재의 의미에 대한 조급성과 미래의 불확실성과 연결된다. 가장 겸허한 증언, 가장 온당한 유물, 기억해야 하는 것들의 잠재적인 존엄성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선조들이 잠재적인 기록의 정보원을 상실하거나 해체한 것에 대해 우리는 그들을 너무도 원망해왔다. 우리는 후대로부터 같은 질책을 받지 않아야 한다. 기억은 늘 새로 용해되어 온전히 흡수되어 왔다. 기억의 새로운 소명은 기록이고, 기록관은 기억의 책임을 위임받았으며, 기록관에 저장된 기억은 마치 뱀이 탈피하면서 껍질을 남기듯이 그 표시를 남긴다(Nora, 1989, p. 13).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그 역사를 살아야 한다고 Wallot(1991)은 역설한다. 종이 위에서 알 수 있는 역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낸 그 역사를 셀 수 없이 많은 말과 숫자와 이미지로 재구성해야만, 살아있는 세포인 역사를 알 수 있다. Wallot(1991, pp. 264-265)은 “과거의 결과로서 현재의 아키비스트들이 존재하고, 아키비스트들은 그 역사의 조류에서 쉽

게 벗어날 수 없다”고 하였다.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는 문화적 장소로서 기록관이 지니는 사회적 역할은 단순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기록관이 대표하는 역사의 범위 역시 사회 전체의 문화와 정체성을 감당하기 역부족이다. 기록만으로는 사회의 집단 기억과 정체성의 일부를 담당할 뿐이고, 이마저도 사회 정치 세력들에 의해 왜곡되고 조작되고 태만히 다루어지기도 한다.

분명 기록과 기록관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이며, 또한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의 결과물이다. 역사의 시공간은 기록과 기록관의 매개로 확대되고 지속되지만, 기록과 기록관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정치 권력의 의도에 충실하며 사회적 규범의 영향을 받는다. 기록과 기록관에 시대의 요구에 맞는 사회적 기억을 보존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즉 기록관을 사회적 기억의 매개체로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 기록과 기록관 자체가 정치사회의 역학관계의 결과물로서 사회적 기억 활동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설립 50주년, 100주년 기념 등, 다수 기관의 기록관이 이러한 기념 활동들의 산물로 탄생한 사례가 그 반증이라 할 수 있다. Cox(1993, p. 126)는 이에 “많은 기록관이나 사료관들은 그 자체로 사회적 기억 활동과 담론의 유물”이라고 말한다.

사회적 기억을 위한 문화기관으로써 기록관은 과거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기록과 기록관은 기관의 입장과 사회의 개념에 따라 특정한 가치를 육성하는 데 연루될 수밖에 없다. 기록(관)의 부재 또한 역사 기록을 편향적으로 남길 목적으로 의도된 것

일 수 있다. Blouin(1999, p. 104)은 기록(관) 및 아키비스트들은 현실적으로 기존의 정치 구조와 권력관계에 동조하게 된다고 말한다. 특히, Brown과 Davis-Brown(1998)은 기록(관)의 일상 기능 중 정치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그들은 기록관의 일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 누가 기록을 통제하고 수집하며 유지하는지, 어떤 기록이 기록관에 보존되거나 배제되는지, 어떤 구조와 스키마에 의해 기록물들이 조직되고 분류되면서 어떤 기록이 돌출되고 어떤 기록이 숨겨지는지 등에 대한 사안들 모두가 정치적 성격을 띤다고 주장하며, 이 모두 예산, 정책, 기술력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하였다. 기관과 사회의 주류 문화와 정치력의 영향에서 일상적인 기록관리 업무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Nora의 주장을 상기해 보자. 현대의 기억을 담보해야 하는 기록/기록관은 역사의 재구성을 위해 사회적 기억을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화답하듯 Wallot은 현재와 같이 무엇이든 즉석이고 피상적인 시대에 기록관은 “기억의 집”으로 사회적 기억을 위한 중요한 열쇠를 가지며 사회 구성원들에게 기록의 보물을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Wallot, 1991, p. 282). 앞선 Foote(1997)의 주장처럼, 사회적 기억을 위한 역할을 기록관이 수행하더라도, 하나의 기록관에서 독립적으로 사회적 기억을 모두 책임질 수는 없다. Talyor(1982, 1983) 역시 기록관이 박물관, 미술관, 지방 향토 기관 등 여러 문화기관들과 함께 사회적 기억에 기여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7. 기억을 위한 아키비스트

사회적 기억, 그리고 그로부터 나타나는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기록과 기록관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관점은, 기록물이 생산자의 활동을 증명해주는 객관적 증거라는 실증주의적 관점을 반박한다. 생산단계부터 기록물은 목적을 지니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없고 (Cook, 2000), 후대에는 그 시대의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기록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Trace, 2002). 따라서 기록은 “법적인 증거로서의 자료가 아니라, 인지되는 기억의 유물이다”(Brothmen, 2001, p. 52). 다수의 학자들은 기록(관)이 사회적 기억에 미치는 힘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기억이 그 시대의 권력관계, 정치구조, 사회적 규범에서 자유로울 수 없듯이 기록(관)과 아키비스트도 그러한 처지에 처해 있음을 상기시켜왔다.

기록관과 아키비스트의 정치적 성격은 기록에 대한 포스트모던 관점의 담론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우리는 이 관점에서, 기록관이 자관의 보유 기록을 통해 세상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기에 사회적으로 더욱 중요해진다고 인식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키비스트 Harris(2002)는 기록이 현실을 반영하고 사건이나 행위의 객관적인 이미지를 제공한다는 통념에 이의를 제기한다. 앞서 거듭 논하였듯이 문자화된 기록은 사건을 향한 창이 아주 작은 부분만을 제공할 뿐이며, 기록은 지배적인 권력 관계의 표현이자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 정의를 위한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그 역할에 충실해질 때 아키비스트는 능동적으로 세상을 기록해나가는 사람이자, 사회적 기억의 형성자

가 된다.

Nesmith(2002, pp. 26-27)는 커뮤니케이션이 인간에 대한 이해와 행동을 규정한다는 점에 집중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에서 보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사회가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종속되어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에 기록관에서 아키비스트는 자신이 제공하는 매개(기록)로 사회지식과 사회지성을 발전시키면서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아키비스트를 기록관에서 제공하는 지식의 주요 매개자 혹은 제작자로 보았으며, 기록을 궁극적으로 사회 지성의 이해를 결정할 커뮤니케이션 매개의 산물로 간주하였다.

과거의 파편만을 보여주는 기록에서 배제된 과거는 기억에 남아 있다. 따라서 기록관에서 기억을 연구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은 기록에서 배제될지 모르는 과거의 일부분을 채워 넣을 가능성을 열어준다(Bastian, 2009, p. 119). 따라서 아키비스트가 수집하는 기억은 지배계층이 기록에 누락시켰던 역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기록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한다는 단편적인 관점을 반박하면서 Schwartz와 Cook(2002, p. 172)은 기록(관)이 역사적 이해의 하나의 근거로 역할 해야 하며, 사회적 기억을 위해 사회의 경험, 인식, 내러티브, 이야기를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으로써, “기억은 기록(관)에서 발견되거나 수집되는 무언가가 아니라, ‘생산’되고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무언가”이고 이 과정에서 아키비스트는 “기억 생산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연기자”라고 묘사하였다. 다시 말해, 기록관에서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록을 통해 기억을 만들어내는 역동적 드라마의 주연이 바로 아키비스트라

는 것이다.

또한, Cook과 Schwartz(2002)는 아키비스트들이 기록물을 매개로 사회적 기억과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권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즉, 기록물을 정치적인 개체로 보았으며, 기록관에 보존된 기록물의 맥락과 정보는 사회적 기억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권력을 내포하고, 여기서 권력은 기록을 생산하고 이용하는 사회와 기록관 사이의 관계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난다고 하였다. 정치적인 권력이 수반된 관계이므로, 아키비스트들은 자신이 하는 기록관련 업무에 있어서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고 신뢰성을 쌓을 수 있어야 한다. Duff & Harris(2002, pp. 275-280)는 아키비스트가 가지는 권력은 반드시 공유되어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기억과 집단 지성을 형성하는 데 아키비스트가 행사하는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이 이 권력행사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Harris는 프랑스 철학자 Jacque Derrida의 이론을 차용하여 기록관은 그 시작으로부터 정치적 권력관계 안에 존재했음을 역설한다. 기록관과 아키비스트는 기억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는데, 위임이라는 행위는 정치적인 권력관계의 진입을 의미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아카이브라는 것은 위임의 본질, 위임의 장소(가상의 장소를 포함)로 위탁하는 그 추적과정을 수반한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위임은 권력의 행

사를 수반한다. Derrida는 아카이브의 권력을 archontic 권력, 위임하는 권력, 위임 장소에 대한 권력이라 불렀다. 일기 쓰는 사람, 작업 중인 화가, 친구에게 e-메일을 보내는 사람, 아카이빙하는 모든 것에 archontic 권력은 작동한다. 아키비스트는 그 시작으로부터 항상 정치적 행위자다(Harris, 2006).¹⁾

사회적 기억을 형성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권력을 가진 아키비스트와 기록의 특성으로 인해, Harris는 아키비스트들이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좀 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Brown과 Davis-Brown(1998, p. 30) 역시 기록의 정치적인 특성을 인식하면서, 아키비스트는 민주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부여받았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Harris는 다음과 같이 언명한다.

아키비스트들은 그들이 어디에서 일하든, 어떠한 입장에 있던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하도록 요구를 받는다. 기록관은 결코 전문가, 학자, 예술가를 위한 한적한 도피처가 될 수 없다. 기록관은 인류 경험의 용광로, 의미와 가치를 위한 전쟁터, 이야기들의 바벨, 복합적이고 변화무쌍한 권력이 작동하는 공간이다. 여기서는 누구도 결박할 수 없다. 의식하든 하지 않든 권력 행사를 넘어서 공정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지배 권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유지하게 하는 선택이다. 그에 반해, 사회정의의 부름을

1) Derrida는 아카이브(archive)의 어원이 고대 집정관인 'archon'에서 왔다고 보았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는 집정관의 거주지(arkheion)에 공문서들이 보존되었으며, 집정관(archon)이 법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사회적 절차와 선례를 해석할 권한을 위탁받았고, 그에 따라 행정을 집행할 권력을 가졌다. 그는 아카이브가 archon 권력(권한을 위탁받은 권력)의 계승자이고, 국가 권력의 설립부터 아카이브의 열기(the fever of archives)와 관련된다고 하였다(Steedman, 2001).

받아 마법의 파편 같은 기록물을 이해하고 다루는 아키비스트들은 언제나 지배 권력을 성가시게 할 것이다(Harris, 2002, p. 85).

Brothman 역시 아카이브와 기억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을 따랐다. 그는 기록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의 특성들에 대한 설명으로 아키비스트 업무의 사회적 맥락을 더욱 강조하였다. 기억과 역사 사이의 대조점에 대한 그의 설명은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는 데 명확한 상을 제공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억의 시간과 역사의 시간, 기억의 과거와 역사의 과거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아카이브의 사명을 표시할 수 있다 [...] 이 관점은 [기억의 기능을 강조하고 역사의 과거를 잠시 보류하는 관점] 우리가 기억의 맥락 안에서 과거를 발견하고 시간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시각을 갖는 것을 정당화해준다. 이 접근은 기억과 기록의 개념간의 명백한 대립을 끝내기, 더 정확히는, 중단하길 시도한다. 이는 사회적 그리고 기관의 기억을 위해 기록관이 적합한 역할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개념적으로 기억의 아키비스트와 역사의 아키비스트는 시간과 시간의 대상에 대해 근본적으로 각기 다른 태도를 지닌다. 기억의 아키비스트는 통합적 지식, 사회적 정체성, 집단 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료로서 과거의 유산에 관심을 가진다. 반면, 역사의 아키비스트는 우리의 것이지만 우리와는 다른 어떤 과거에 대한 선행적 내러티브를 개발하기 위해 기록을 찾는 것에, 그리고 그 안에서 증거를 알아내는 데 관심이 있다(Brothman, 2001, p. 62).

Brothman은 과거와 시간의 거리를 기억의 맥락 안에서 설명하고 기록관과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확인한다. 그는 기억을 고려했을 때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사회적 정체성과 통합적인 사회지성을 성취하기 위해 기록화업무를 하게 될 것이고, 역사를 고려했을 때 그들은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업무를 하게 될 것으로 구분하였다. Brothman이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두 가지로 설명한 것처럼, Wallot 역시 정보화 시대의 아키비스트는 또 다른 두 가지 사명을 가진다고 하였다. 첫째, 기록관의 모기관을 위해 정보와 증거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역할과 둘째, 집단의 기억, 정체성, 가치형성과 전승의 과정에 참여하는 궁극적이고 기본적인 역할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사명의 결합은 기억의 개념과 연결되어 부분의 합보다 더 큰 결과를 이끌어낸다고 하였다(Wallot, 1996, p. 23). 좀 더 현실적인 부분에서, 기억을 위한 아키비스트는 사회가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관조하는지 그 맥락에 따라 기록업무의 방향과 성공여부가 결정된다. 기록물을 관리하고 제공하는 구체적인 업무도 사회적 기억을 고려했을 때 전통적으로 행해왔던 이론과 원칙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고 의문을 제기하도록 한다.

기억과 관련하여 가장 적합한 기록업무는 평가와 선정일 것이다. 기록관에서 어떻게 사회적 기억을 담보하는지는 기록관이 무엇을 선정하여 수집할지에 대한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다. Craig(2002, pp. 287-289)는 “기록물 평가는 사회적 기억을 형성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기록관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아키비스트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단언한다.

Duff & Harris(2002)는 풍 존중 원칙, 출처 주의, 원질서 존중 원칙 등을 포함하는 전통적인 기록물 정리 기술 표준이 기록물 생산과 이용에 대하여 제한적인 정보만을 반영한다고 논박한다. 기록물의 정리와 기술은 아키비스트가 기록물에 관하여 이야기를 펼치는 과정이고, 기록물로 이야기가 만들어질 때마다 기록물의 의미는 변한다. 기록물을 둘러싸고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진다. 생산자, 아키비스트, 이용자 등 수많은 관련자들이 기록물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그 과정은 끝없이 이어진다. 기록물을 둘러싼 부분적 이야기들의 큰 그림은 변화무쌍한 사회의 기억, 맥락, 환경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록물의 정리와 기술방법은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검색도구는 폐가식으로 이용되는 기록물의 경우 이용자와 기록물을 연결하는 유일한 대리정보다. 따라서 기록물이 검색도구에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에 따라 기록물이 대표하는 역사와 기억이 기록물을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자에게 전달된다(Sinn, 2010).

기록물의 기술이 이용자에게 지배 권력의 협소한 증거만을 제시할는지, 기록물이 가지는 사회적 기억의 폭넓은 가능성을 제시할지는 정리와 기술이라는 구체적인 기록업무가 어떤 관점으로 정해지고 수행되는지와 관련된다. 기억을 위한 아키비스트는 검색도구에 수많은 이야기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또 아키비스트 자신이 하는 이야기의 근거를 설명하며, 자신의 편견이나 관점을 공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해석의 여지를 보여줄 수 있다(Light & Hyry, 2002).

Cox(1993, p. 131)는 기록관의 이용자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아키비스트의 임무를 통해서, 사회적 기억을 위한 기록관의 이미지, 인식, 성공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이용자서비스, 홍보 활동은 환경이 맞을 때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수 있다. 그는 아키비스트가 기록업무에 대한 진가를 분명히 알리지 못했을 때, 대중의 관심은 매우 변덕스러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같이, 기억을 위한 아키비스트는 전통적으로 해오던 아키비스트의 기록업무를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한다. 관점의 차이는 실질적인 기록업무의 차이를 가져오고 업무의 결과는 미래의 우리가 현재의 우리를 발견하는 내용의 차이를 가져온다. 기억을 위한 아키비스트는 그런 면에서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이고 경험할 수 있는 실제로서의 활동이다.

8. 맺는 글: 노근리 기록과 기억 연구에 대한 함의

역사사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축적되고 해석되면서, 이 전체적인 과정은 개개인들이 살던 사회의 과거를 이해하는 사회적 기억의 일부가 된다. Linenthal(2001, p. 4)이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 사건'에 관련하여 이야기하였듯이, "폭탄 테러는 '사건'이 되고 '이야기'가 된다. 그 사건을 경험했던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들은 진보적인 내러티브, 속죄의 내러티브, 중독적인 내러티브, 충격으로 인

한 트라우마 내러티브 등의 이야기를 살아내고 있다. 이런 사적이고 개인적인 내러티브는 사건의 해석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인 이야기가 된다.” 사회적인 이야기는 공식 문서에 살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이야기를 보존하고 전승하여 사회에서 ‘기억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무엇일까?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위해 모인 연구자들이 공유한 첫 번째 답론은 역사와 기록의 근간이 되는 기억의 사회, 문화, 정치적 특성과 이를 대하는 아키비스트의 역할에 대한 이해에 관한 것이었다. 1950년 7월의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 발생 이후, 주류의 역사와 기록은 사건의 진실을 외면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에 대한 반세기의 부정도, 기억하고자, 잊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 진실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노근리 사건의 진상규명과정은 기억의 힘을 보여주는 전례가 되었다. 노근리 사건을 다루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기억에 대한 다면적 논의는 필연적 과제가 되었다.

노근리의 기억은 노근리 공동체에 남아 지난 한 세월 동안 전승되어 왔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사건이 공론화가 되었고, 역사가와 사회구성원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중의 다른 유사한 사건들과 같이 기억되면서도 양민학살사건의 대표격으로 각인되면서, 사회적 기억과 망각의 과정을 거쳤다. 한국전쟁의 기념일들을 지내면서 다시 한 번 사건이 환기되기도 하고, 다양한 사회 문화적인 치유과정이 기념일, 기념식과 함께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 모든 과정이 사회적 기억의 전형적인 생산, 재생산 과정이었다.

기억의 작용에서 현재의 사건은 과거의 기억

을 이끌어낸다. 한국전쟁 발발과 휴전의 몇 주년을 맞이할 때마다, 그 시절의 참상은 다양한 영역에서 재조명되고, 사람들의 기억은 환기된다. 세월호사건은 우리사회의 안전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과거의 유사한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을 되살린다. 2015년 12월 박근혜정부가 일본 정부와 나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안’으로 불거진 사회적 논란은 양국의 아픈 과거사를 오늘의 것으로 되살려내고 있다. 오늘의 관점과 문제들이 과거에 대한 기억을 유발하고, 발전시키는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있는 정치권력의 정당성과 직접적 연관성을 지니는지를 반증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전쟁 후 냉전시기 동안 노근리 사건이 생존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처참히 무시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사회 정치적 상황은 이제 노근리 사건을 다시 되새기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노근리의 기억은 여전히 현재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면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노근리는 평화공원을 근거로 제2의 기억 활동을 하고 있다. 노근리 평화공원의 평화기념관에서 제공하는 기억과 기록들, 노근리 국제평화재단이 유치하고 진행하는 많은 문화사업들은 기념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전쟁의 양민학살 사건을 규정하고 기억하게 하며 전승하게 한다. 한국전쟁의 아픔은 그걸 겪어낸 세대의 정체성과 관련되고, 기념의 과정과 기억과 기록의 활동으로 세대를 이어가는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 기념활동과 기억 활동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비극의 무게를 나누고 위로를 받는다. 이는 유대인의 홀로코스트의 기억화 과정과도 유사하다. 홀로코스트라는 트라우마는 공동으로 큰 비극을 견뎌낸 국민들의 정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 정체성을 형성하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기억 및 기념 활동은 큰 부분을 차지한다. 사건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활동은 결국 독일인과 오스트리아인의 범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와 유대인들의 고통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절차를 통해 수행되었다. 범죄의 인정과 고통의 표현은 정치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기념식이나 기념관, 기념비, 국경일 등을 통해 표출되기 때문이다(Young, 1993). 세월호 사건으로 꽃다운 청소년들을 그렇게 보낸 아픔을 기억과 기록으로 치유하려는 노력에서도 같은 사례를 볼 수 있다. 기록이 상처를 위로한다고 하지 않는가? (안정희, 2015).

이제 노근리 기억을 위한 아키비스트의 역할

에 집중해 본다. 기억을 위한 아키비스트는 과거의 일이 사건이 되고 이야기가 되고, 또 개인적인 이야기가 사회적인 이야기가 되는 과정을 구조화하고, 사회적 기억이 어떻게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지 어떻게 사회의 통합적인 지성을 구성하는지를 관망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기억을 위한 아키비스트는 사회적 기억을 조정하고 장악하려는 권력에 저항하고, 주류 기억만을 보존하는 전통과 체제를 거부하여야 한다. 사회에서 비주류의, 소외된, 기록에서 배제된 집단의 기억에도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며, 아키비스트 스스로의 편견과 배경 역시 기록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업무의 투명성과 기억을 향한 권력의 공유를 위해 힘써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공유하며, 기억을 위한 아키비스트로서 노근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그것이 우리의 책무이자 사명이다.

참 고 문 헌

- 김명훈 (2014). 기억과 기록: 사회적 기억 구축을 위한 기록학의 역할. 기록학연구, 42, 3-35.
- 안정희 (2015). 기록이 상처를 위로한다. 서울: 이야기나무.
- 윤은하 (2012).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33, 3-37.
- 최정은 (2011). 사회적 기억과 구술 기록화 그리고 아키비스트. 기록학연구, 30, 125-133.
- Assmann, J. (1995). Collective Memory and Cultural Identity. *New German Critique*, (65), 125-133.
- Bartlett, F. (1932). *Remembering: A Study in Experimental and Social Psycholog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stian, J. A. (2009). Flowers for Homestead: A Case Study in Archives and Collective Memory. *The American Archivist*, 72, 113-132.

- Blouin, Jr. F. X. (1999). Archivists, Mediation, and Constructs of Social Memory. *Archival Issues*, 24(2), 101-112.
- Brothman, B. (2001). The Past that Archives Keep: Memory, History, and the Preservation of Archival Records. *Archivaria*, 51, 48-80.
- Brown, A. D., Kouri, N., & Hirst, W. (2012). Memory's Malleability: Its Role in Shaping Collective Memory and Social Identity. *Frontiers in Psychology*, 3, 257.
- Brown, R. H. and Davis-Brown, B. (1998). The Making of Memory: The Politics of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s in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Consciousness. *History of the Human Sciences*, 11(4), 17-32.
- Burke, P. (1989). History as Social Memory. In *Memory: History, Culture and the Mind*, ed. by Thomas Butler, Oxford, UK: Basil Blackwell Ltd., 97-113.
- Connerton, P. (1989). *How Societies Remember*.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ok, T. & Schwartz, J. M. (2002). Archives, Records, and Power: From (Postmodern) Theory to (Archival) Performance. *Archival Science*, 2(3), 171-185.
- Cox, R. J. (1993). The Concept of Public Memory and its Impact on Archival Public Programming. *Archivaria*, 36, 122-135.
- Craig, B. L. (2002). Selected Themes in the Literature on Memory and Their Pertinence to Archives. *The American Archivist*, 65, (Fall/Winter 2002), 276-289.
- Duff, W. M. & Harris, V. (2002). Stories and Names: Archival Description as Narrating Records and Constructing Meanings. *Archival Science*, 3, 263-285.
- Foot, K. (1990). To Remember and Forget: Archives, Memory, and Culture. *The American Archivist*, 53, 378-392.
- Foot, K. (1997). *Shadowed Ground*. Austin, TX: University of Texas Press.
- Geary, P. J. (1994). *Phantoms of Remembrance: Memory and Oblivion at the End of the First Millenniu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lbwachs, M. (1922). *On Collective Memory*. Edited, transla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Lewis A. Coser.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rris, V. (2001). Seeing (in) Blindness: South Africa, Archives and Passion for Justice, opening keynote speech at the August 2001 Silver Jubilee annual conference of the Archives and Records Association of New Zealand (ARANZ), Records: The Power, Passion and Politics, in Wellington, New Zealand. Retrieved January 17, 2016, from http://scnc.ukzn.ac.za/doc/LibArchMus/Arch/Harris_V_Freedom_of_Information_in_SA_Archives_for_justice.pdf

- Harris, V. (2002). The Archival Silver: Power, Memory, and Archives in South Africa. *Archival Science*, 2(1/2), 63-86.
- Hutton, P. H. (1993). *History as an Art of Memory*. Hanover, NH: University of Vermont.
- Klein, K. L. (2000). On the Emergence of Memory in Historical Discourse. *Representations*, 69, 127-150.
- Le Goff, J. (1992). *History and Memory*. Translated by Steven Rendall and Elizabeth Clamon.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Light, M. & Hyry, T. (2002). Colophons and Annotations: New Directions for the Finding Aid. *The American Archivist*, 65(2), 216-230.
- Linenthal, E. T. (2001). *The unfinished bombing: Oklahoma City in American mem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oftus, E. F. & Palmer, J. C. (1974). Reconstruction Of Automobile Destruction: An Example Of The Interaction Between Language And Memory.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13, 585-589.
- Lowenthal, D. (1975). Past Time, Present Place: Landscape and Memory. *The Geographical Review*, 65, 1-36.
- Lowenthal, D. (1985). *The Past is a Foreign Count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ehan, J. (2009). The Archival Nexus: Rethinking the Interplay of Archival Ideas about the Nature, Value, and Use of Records. *Archival Science*, 9, 157-164.
- Millar, L. (2010). *Archives: Principles and practices*. New York, NY: Neal-Schuman Publishers.
- Nesmith, T. (2002). Seeing Archives: Postmodernism and the Changing Intellectual Place of Archives. *The American Archivist*, 65, 24-41.
- Nora, P. (1989). Between Memory and History: Les Lieux de Memoire. *Representations*, 26, 7-24.
- Schwartz, J. M. & Cook, T. (2002). Archives, Records and Power: The Making of Modern Memory. *Archival Science*, 2, 1-19.
- Sinn, D. (2010). Archival Description and Reconls from Historically Marginalized Cultures: A View from a Postmodern Window.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4), 115-130.
- Steedman, C. (2001). Something She Called a Fever: Michelet, Derrida, and Dust.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6(4), 1159-1180.
- Taylor, H. A. (1982, 1983). The Collective Memory: Archives and Libraries As Heritage. *Archivaria*, 15, 124-125.
- Thelen, D. (1989). Memory and American History. *Journal of American History*, 75, 1117-1129.

- Trace, C. (2002). What Is Recorded Is Never Simply 'What Happened': Recordkeeping in Modern Organizational Culture. *Archival Science*, 2(1/2), 137-159.
- Wallot, J. (1991). Building a Living Memory For the History of Our Present: New Perspectives on Archival Appraisal. *Journal of Canadian Historical Association*, 2(1), 263-282.
- Wallot, J. (1996). Limited Identities for a Common Identity: Archivist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rchivaria*, 41, 6-30.
- Wareham, E. (2002). From Explorers to Evangelists: Archivists, Recordkeeping, and Remembering in the Pacific Islands. *Archival Science*, 2, 187-207.
- Woolfe, D. (1991). Memory and Historical Culture in Early Modern England. *Journal of the Canadian Historical Association*, 2, 283-308.
- Yeo, G. (2007). Concepts of Record (1): Evidence, Information, and Persistent Representations. *The American Archivist*, 70(2), 315-343.
- Young, J. E. (1993). *The Texture of Memory: Holocaust Memorials and Meaning*.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Young, M. B. (2002). An Incident at No Gun Ri. In *Crimes of War: Guilt and Denial in the Twentieth Century*, ed. by Omer Bartov, Atina Grossmann, and Mary Nolan. New York, NY: The New Press, 2002.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Jeong-Hee (2015). *The Records Heal the Wounds: Homo-Archivist*. Seoul: Yiyaginamu.
- Choi, Jeong-eun (2011). A Study on Archiving of 'Social Memory' and Oral Record: Focused on the Role of Archivist in the Stages of Oral Record Collecting and Planning.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30, 125-133.
- Kim, Myoung-Hun (2014). A Study on Roles of Archival Science for Building Social Memories.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42, 3-35.
- Youn, Eun-ha (2012). Communities and Community Archives.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33, 3-37.